

타고 다닐 호랑이가 머무는 소나무



지정번호

창원-12-17-8-1

지정년도

1993

관리기관

창원

수령

410년

수고

9m

흉고둘레

3.4m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여양리 산 38

35° 10' 44.46" N

128° 22' 47.00" E



창원시 진전면 여양리는 여항양리의 축약된 이름이며, '여항'은 여항산(770m)을 지칭하는것으로 여항산 남쪽에 있는 마을을 뜻한다. 여양리는 여러 자연 마을이 있으며, 그중 둔덕마을과 옥방마을의 규모가 큰 편이다. 여양리의 문화 유적은 보호수(창원-12-17-8-1)의 소나무이다. 이 소나무는 오곡재를 넘어 함안군 오곡리로 가는 길목인 진전천 상류지역의 옥방교를 지난 마을에 있다. 옥방마을 입구의 하천과 접한 산자락이다. 옥방마을은 보물이 묻혀 있는 광산촌이라는 뜻으로 옥방(玉方)이라 불렸다. 방석처럼 넓적한 이 소나무 뒤에는 처사춘산경수밀성박공묘비(處士春山耕叟密城朴公墓碑)가 세워져 있다. 여양리는 밀성 박씨가 많이 살고 있는 집성촌이다. 소나무의 수령은 410년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마을 사람들은 500여 년에서 800여 년으로 추정하고 있다. 밀성 박씨 종중에서 관리하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소나무의 모양이 특이한 화목형(花木形)이라 하여 '꽃소나무'라 부른다. 또한 이 소나무는 그 모양이 특이하고 아름다워 6·25한국전쟁 때에 미군이 헬리콥터를 이용하여 가져가려다 실패했다는 말이 전하고 있다. 전설에 의하면 진전면 옥방마을에 거주하던 밀성 박씨의 선조들은 호랑이를 불러 타고 다녔다. 그들이 진주시 방면으로 오갈때면 이 소나무가 있는 곳을 지나가야만 했는데 그때 호랑이를 부르면 이 소나무가 호랑이를 맞이하였다. 목적지를 가거나 돌아올 때도 이 소나무가 호랑이를 맞이하였다가 산으로 되돌려 보냈다. 또한 이곳 주민들 사이에서 구전하는 것으로는 '이 소나무가 신선이 타고 오는 호랑이를 기다린다'고 하였는데, 이는 아마도 눈이 내려 앉은 소나무를 멀리서 보았을 때에 마치 방석처럼 보이는 넓적한 소나무의 형태가 커다란 백호가 얹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의미인 듯하다. 소나무 앞의 하천 쪽에는 독립가옥이 한 채가 있고, 그 옆에는 밀성 박씨의 옥산재가 있다. 옥산재의 출입문 위에는 '우러러 그리워한다'는 '양지문(仰止門)'이라는 편액이 걸려 있다.